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 7:24-29)

Those Who Hear His Word and Put it into Practice (Matt. 7:24-29)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로 시작한 주님의 산상보훈은 8복의 말씀으로 이어지다가 본문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결론은 한 마디로 하나님께 인정 받는 길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f there is the greatest sermon in human history, it would be Jesus' Sermon on the Mount.

'Jesus begins His Sermon from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and goes on to the Beatitudes. And He concludes the three metaphorical speeches in this text.

In conclusion of the Sermon of Mount, in the Word, the established way from God is not a word but practice.

1.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반석위에 지은 집과 모래위에 지은 집의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나쁜 나무들, 모래 위에 세운 집의 특징은 “주여, 주여” 라고 말은 잘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 까 하리니”(마 7:22).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역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오직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The established way by God that is not a word but practice

In practice bearing fruits, we will realize the metaphoric core of false and truthful prophets, the good and bad trees, the house built on a rock or the sand.

The distinct features of false prophets, bad trees, houses built on sand are those who just say 'the Lord, the Lord', but do not obey God's word, and do not put it into practice.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drive out demons and perform many miracles?' (Matt. 7:22)

Many people list the works of which have been done in God's name, 'Lord, Lord, in Your name...'. Nevertheless, Jesus says towards them, "I never knew you", which means only those who hear my word and put it into practice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2.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 으리니”(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들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결코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 지가 아닙니다.

사실 반석위의 집과 모래위의 집은 겉보기에는 전혀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의 터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기 원합니 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반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비바람과 창수와 태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거센 비바람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반석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운 사람은 걱정할 것 이 없습니다. 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거센 비바람이 불 어올 때, 결국 그 집은 크게 무너지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시 1:1-3).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계 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시 119:50, 98)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기를 살렸고, 또한 지혜를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 다.

2. The work of which we hear His word and put it into practice makes the foundation solid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Matt. 7:24).

The one who hear God's words and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ds his house on the rock. Jesus is not emphasizing the kinds of feats people can accomplish through their life.

In fa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house built on the rock and house on the sand has nothing to do anything else, but Christ. A larg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would like to establish their life on such things as money, honor, and power. However, truthful Christians must make their life, living and practicing the Word revealed through Jesus Christ who is our rock.

We may encounter a rainstorm, flood, and typhoon during our life. We may sometimes have to endure the possibility of the fierce rainstorms of sufferings coming over us.

However, anyone who obeys God's word and builds their life on this rock does not need to worry about anything. On the other hand, when those who hear God's word but do not obey it, and meet the fierce rainstorms of life, their house will be destroyed and they will have no choice but to live their miserable life.

Who is the blessed? Blessed is the man who loves God's word, is in delight, meditates day and night on the law, and obeys His word. (Ps. 1:1-3)

"My comfort in my suffering is this: Your promise preserves my life. Your commands make me wiser than my enemies, for they are ever with me. (Ps. 119:50,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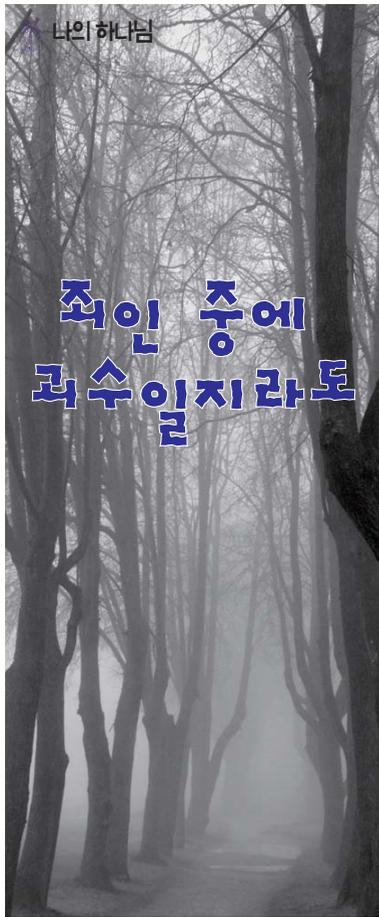
The psalmist confesses that God always preserves his life, and gave him wisdo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서 그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두어서 지혜로운 자의 형통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Don't be a foolish person by stopping to only hear His word. However, by hearing His word and putting His word into practice, you build your foundation on Jesus Christ's rock.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fully enjoy the blessings in the way of the wi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김광신 장로(12교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질이 무거운 순서대로 100명까지 앞으로 나와라.” 물론 그 100명 중에 내가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중에서 50명의 중 죄인을 고르겠다. 그때도 내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20명이 중 죄인이다.” 물론 그때도 내 이름이 20명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 죽을죄인 10명만 남고 나머지는 용서할테니 집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남은 죄인 10명은 죄질이 가장 무거운 순서대로 서라.” 아! 그런데 내가 그 10명중에 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 중에 죄수라. 네가 범한 죄는 용서 받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나는 착각하고 살았고,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죄가 들보가 아니라 눈의 티 밖에 안 된다 믿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들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눈의 티 정도의 죄만 지었을 뿐이고, 나는 들보 수준의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1등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뿐입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형편이 되었으니 오도 가도 못하고 두문

불출해야 합니다. 이제 변명도 못하고 핑계도 어렵습니다.

내가 왜 죄인 중에 죄수입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살인도, 도둑질도, 주일을 범하지도 않았습니.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람 편을 들어주시고 내 편을 안드십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으며 주의 일에 열심을 다했으며 충성한 종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일했고, 너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 힘썼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 중에 죄수라.”

이제 나는 살 길도 없고 소망은 물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은 사울같은 사람도 본인이 죄수라고 했는데 살려주셔서 일꾼 삼으셨는데 나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 주를 위해 평생 일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 주실 수 없습니까? 내가 지금은 죄인 중에 죄수일지라도 나를 택해 주시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인 중에 죄수일지라도 은혜 입기를 원하며 사명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 되고, 소원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소식

일본기독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며

허창범 선교사(일본)

일본기독교단 관동교구(노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제가 처음으로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일본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12월 1일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도 물질로 후원하여 주신 일본 선교도고팀과 선교위원회와 서울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동교구는 동경 옆에 위치하며 다섯개의 켈(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총 145개이며 성도수는 총 4,350명정도 입니다. 지역은 넓는데 교회와 성도수는 적은게 현실입니다. 또한 성도와 목회자의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목회자는 리더십을 상실하고 교회는 힘이 없어서 복음사역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렵게 목회자 사레비와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는 145개 중에서 1/3밖에 안됩니다. 1/3의 교회는 유지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나머지 1/3의 교회는 교구(노회)의 도움으로 최저의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안수를 받으며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겠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역



할을 하는것입니다. 어려운 일본교회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협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

1. 일본기독교단 관동교구 오미야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 저와 일본인 교역자 2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 할수 있도록
2. 일본기독교단과 관동교구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오미야교회의 성전건축과 히키다구니마로목사님의 1월 9일 간담수술을 위하여
4. 앞으로의 사역과 저와 가족이 늘건강하고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교회창립 21주년 감사찬양예배

찬양의 노래 Lobgegang

김영준 장로 (임마누엘 찬양대 부장)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교회창립 21주년 기념 축하 음악예배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려 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최고와 최선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곡은 멘델스존의 <찬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성경말씀에 의한 교향 칸타타입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소원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소망부

행복의 전당으로 오세요!

공진문 권사(소망부 차장)

소망부는 70세 이상 되는 노학우들의 공부방이며 예배와 찬양과 소망이 충만한 행복의 전당입니다. 소망부는 매 주일 1부 예배후 603호에서 모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46주간 서명철 목사님에게 열심히 배운 성경으로 퀴즈대회가 반 대항으로 열렸습니다. 매우 예리하고 난이도가 높은 퀴즈였으나 소망부 학생들은 그간 열심히 공부한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가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1,2,3등 받을 가려 푸집한 상품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깜짝 퀴즈가 있어 정답자에게 배고팠던 시절에 먹었던 통밀쌀을 주셔서 잠시 향수에 젖기도 했습니다.

지도하시는 서명철 목사님 영육간에 강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부장님, 차장님, 교사님들, 목청껏 찬양 인도하시는 이부자 권사님, 회계를 보시며 소망부를 섬기시기에 바쁘신 박명석 권사님, 차를 봉사하시는 흥건포 권사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망부의 학우들 모두 모두 강건하셔서 이 땅에서 평강으로 장수하시길 기도합니다. 해당 나이이면서 아직 소망부에 오지 않으신 분들, 혹은 알지 못하여 못오신 분, 모두 모두 소망부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3사단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

우리 교회는 지난 12월 1일(토) 육군 3사단 진중세례식을 통해 99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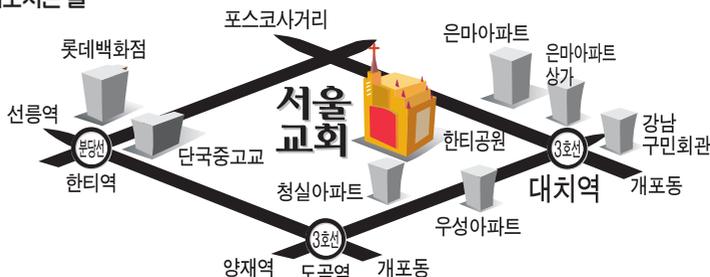
우리 교회의 Vision2020 운동은 민족의 75%를 2020년까지 복음화를 위해 시작된 운동이다.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 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영어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수 요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는 찬양대 헌신예배 및 임마누엘 찬양대(부장:김영준장로)의 교회창립 21주년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류중기 집사의 지휘로 멘델스존 작곡의 "찬양의 노래 [Lobgesang]" 전곡을 연주하며, 오르가니스트 김여정 선생, 피아니스트 양경실 집사, 팀파니스트 윤중현 선생의 반주로 솔로리스트, 소프라노 조성아, 박세아, 박주리 선생과 테너 이진영 선생이 협연한다. 특히 8번곡 "다 감사드리자"는 찬송가 66장의 "다 감사드리세"로 2절을 온 성도가 찬양대와 함께 부르게 된다.

성도의 품위를 지키는 주차문화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 주일 삼성로 주정차 서비스정류장 표지 전후각 10M 씩, 횡단보도 등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맙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10일(월) 기독교교도소 개소 2주년기념에 배 속도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한국총동문회 2012 가족의 밤 및 제6회 심포지움에서 자랑스런 동문상을 받는다. 12일(수) 서울강남노회 전 노회장 및 신구임원 상견례에 참석한다. 13일(목) 한국군선교의 밤 행사에 참가한다. 15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 사업회 9차 월례회 및 5차 세미나를 소집한다.

■ 수상 : 2교구 이동만 집사 2012년 한국섬유패션대상 수상-맞춤양복부문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12.9) 한나전도회(12.16)

■ 금주의 식사: 홍창훈 집사 · 박대경 집사 가정
이태원 집사 · 최정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3년도 섬김위원들로 임명 되는 모든 주의 일꾼들 위에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야기 예수 탄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 새해에 변화하는 교육부서의 사역들이 잘 준비되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